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편집부국장·정치부장

엊그제 대한민국 역사와, 대통령사(史)에 커다란 ‘이정표’가 세워졌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의 사표를 국민에 전한 것이다. 5·16 및 12·12 쿠데타가 총칼에 의한 ‘정권 찬탈’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은 민의가 결정한 ‘정권 퇴출’ 명령이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통령이라 해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권자의 뜻을 어기면 언제든 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로써 또 하나의 대통령 전축사가 추가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하야하더니, 윤보선은 박정희의 총구 앞에서 힘없이 물러섰다.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흉탄에 스러졌고, 과도 정부를 맡았던 최규하는 신군부의 위세를 끌 내 버티지 못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은 제대로 임기를 마치긴 했지만 전-노는 감옥에 가야 했고, 김영

은펜칼럼



박 행 순
네팔 카트만두대 객원교수

네팔에서 몇 개의 단체 카톡방에 들었는데 가장 재미있는 곳이 40 여명으로 구성된 ‘실버방’이다. 대화 내용들은 건강 정보, 애경사, 우스갯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등 다양하다. 50대는 주로 듣는 쪽이고, 다수인 60대보다 몇 안 되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한 70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주고받는 대화가 해묵은 된장처럼 구수하다. 급년 들어 ‘시니어방’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나는 그간의 대화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방을 못 빼고 있다.

실버들은 외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따르는 문제로 맘 졸이는 일은 없

기 고



조 계 현
4·19혁명 국가유공자

광주 3·15 의거는 광복으로 수입된 민주주의가 토착해 주권재민을 확인·수호하고 독재정권을 타도한 4·19혁명의 첫 봉화로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다. 비로소 56주년을 맞아 그 기념식이 광주시의 주관으로 행해진다. 다행이면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광주 3·15 의거의 의의와 위상, 선양을 위한 논란의 발표 등 노력에도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의 지도자들은 항도의 정체성과 자존심으로 접근하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4·19 혁명정신을 건국정신이라고 천명한 헌법 전문을 기억하는 광주·전남의 지성인들에게 원망을 넘어 자괴심을 갖기도 하였다.

광주 3·15 의거에 3시간 뒤늦은 마산 3·

나아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

삼·김대중은 임기 중 아들과 측근들 때문에 국민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도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삼았던 노무현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촛불이 인도한 갈림길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가 처음이다. 파면으로만 끝나지 않고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그의 운명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를 그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박근혜의 아버지에 이어 또 한 번의 대통령 ‘유고’ 사태를 맞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 대통령의 부재는 엄청난 일이다. 두 달간의 짧은 공백기라지만 대통령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불안’ 그 자체요, 국가적 불행이다. 우리는 앞으로 두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바라보는 제19대 대선 의 초점은 어디로 모이는가. 우선 정치권은 새로운 권력 다툼을 위해 이미 출발선을 지났다. 야권은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정권교체를 되뇌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진보에 정

권을 맡겼다가는 국가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이에 맞선다. 이에 비해 ‘촛불’로써 무능하고 ‘비선’에 휘둘린 대통령을 내려앉힌 국민은 차기 대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여긴다. 건국 이후 ‘한국병’이라 일컬어지던 정경유착과 부패, 지역·이념·빈부·세대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갈림길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파면된 박근혜가 보여 준 서울 삼성동 사저 귀갓길 풍경은 우리의 앞길에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졌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의 칼잡진 항변에는 험난한 역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수백 명의 박근혜 지지자들이 울분을 토로하던 장면에서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축적 혐의를 받던 전두환의 ‘골목길 회견’이 오버랩됐다.

당신에게 주어진 열쇠

이렇듯 앞길이 험난해 보일지라도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양 갈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병폐의 근원이 된 ‘반칙과 밀실’을 답습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법치와 합리’의 성숙한 사회의 문을 열게 할 것

인가? 지역과 패거리의 폐습에 갇혀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탕평과 포용으로 통합의 세상을 열어젖힐 것인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로 지칭되는 구시대 적폐가 자취를 감춘다 해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잔재를 시원하게 도려내지 못한다면 ‘구악’은 언제든 막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부패한 권력과 정실의 맛은 달콤하기 그지없다. 한 번 혀로 느끼면 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치명적인 그 맛. 한 번 즐김 때마다 꼭 그만급 썩어 간다고 생각하면 어찌 두렵지 않으랴.

정치권은 지금 온갖 갑언이설로 정권을 맡겨달라고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각별하게 각성해야 한다. 여든 아든 정권을 거머쥔 후 슬며시 찾아오는 아합의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 무늬만 다를 뿐 또 다른 구태가 자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유권자 당신들의 몫이다. 지난겨울 흑한에도 발을 동동 구르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간절하게 외쳤던 당신들이건만 이제 고작 선택의 열쇠 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당신들이 진 열쇠가 환한 미래를 열어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어둠의 계단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은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다. /unipark@kwangju.co.kr

‘네실수’(네팔 실버들의 수다)

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고국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 걱정을 한다. 한해에, 특히 겨울 동안에 부모님들의 소천 소식이 몇 건씩 올라온다. 급히 비행기표를 구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눈을 감으셔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전해들을 때는 모두 가슴 아파한다.

어느 겨울에는 네 분이아 돌아가셔서 마음이 울적할 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홍콩성에 사는 74세 왕일민씨의 99세 된 어머니는 아주 멀고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서장(티베트)을 가보고 싶어 했다. 가난한 아들은 세발자전거에 수레를 매달아 어머니를 태우고 서장을 향해 세상 구경을 나섰다.

출발하여 900일 즈음, 103번째 생일을 앞둔 어머니는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라며 눈을 감았다. 그 할머니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보러 여기, 네पाल에 오고 싶어하셨는지 모른다. 우리는 한동안 자신들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실버들은 젊은이 못지않게 멀리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진과 함께 활동내용을 중계하니 우리는 구태어 먼 곳까지 안 가고도 많은 것을 간접 체험한다. 최고령자인 77세의 최 목사님은 “저는 현재 덩거리에 와 있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도 둘러보고요. 덩거리가 덥다고 해도 견딜 만 하네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달은 덩거리라 그런지 덩그러렇게 뻗고, 약간 더워도 공기는 상쾌하기 이를 데 없네요. 저만 마스크 없이 심호흡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더구나 여기는 24시간 전기가 있어서 아주 편리치 않네요”라고 썼다. 그 무렵, 카트만두에서는 하루 13시간 정전이었다.

또 다른 연장자인 오 선교사님은 “이타하리 동쪽 외곽 마을에 머물렀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카스트냐고 묻기에 한국엔 카스트 없다가니가 아주 신기해하더군요.” 오가는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걸, 좌편을 버려놓고 조는 듯 보이는 아낙네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분명 카스트가 있죠. 피아노 잘 치면 피아니스트, 기타 잘 치면 기타리스트, 자동차 운

전 잘 하면 카스트죠. 무슨 카스트냐 물었다면 차종을 물었을 거예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카스트가 없다 하셨다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카스트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고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엄두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카톡방이 입씨름 장으로 변하여 토닥토닥하는 것이 여간 재미있다. 설전 주자는 주로 연장자들이고 그보다 젊은이들은 은근히 응원을 하며 흥을 돋우다가 편찬을 받기도 한다. 한밤은 유쾌한 설전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다가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실·버·분·과’ 사행시로 마무리하였다.

실:실없이 오가는 7순들의 대화에 버:버벅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분:분명 그 속에도 알맹이는 있고 과:과유불급을 알기에 이만 스톱! 해를 거듭하며 우리의 행복한 수다는 계속될 것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광주 3·15 의거 57주년의 감회

15 의거의 파장과 많은 희생자의 속출에 국민이 경악하고 그 이미지가 3·15의거를 상징하게 된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광주 3·15 의거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최초의 항쟁이요, 4·19 민주혁명의 첫 봉화라는 역사적 의의와 위상은 마산의 3·15 의거가 대신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

3·15 의거는 광주와 마산 두 지방에서만 감행된 3·15 부정선거 규탄 항쟁이다.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야당을 탄압 해체하려다시피 한 독재정권의 비호를 받은 폭력배의 테러와 살인을 주저하지 않은 공포는 야당과 양심세력을 불만에 떨게했다. 3·15 당일 공공연히 불법·부정 투표가 행해진 것을 보고도 숨죽여 있었던 상황에서 전국 250여 시·군 자치단체 중 오직 광주와 마산의 시민만이 몸을 던져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다.

광주·전남 일원에서 야당원에 가해진 집단 테러가 여수·광산에서는 살인으로 이어진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절망을 몸을 던져 저항한 광주시민의 절규가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이며 광주의 3·15 의거였다.

3·15 의거는 4·19 혁명으로 포괄되어 국가보훈기본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서 명시된 국가기념 대상이다. 따라서 3·15 의거는 4·19혁명으로 기념되고 있는데 마산에서는 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3월15일을 ‘마산시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 의식(儀式)의 격상을 추진해 정부가 지난 2010년 ‘3·15 의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마산의 3·15 기념식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7년을 맞는다.

광주 3·15 의거는 기념식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4·19혁명의 첫 봉화로서 의의와 위상을 기억하고 교훈되게 표상하는 상징적 기념사업은 정부나 광주시의 의무임에도 이를 환기하는 요로에의 진정에도 외면되어 광주의 3·15 의거는 세월과 함께 잊혀왔다.

다행히 ‘3·15 의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입법되어 광주3·15의거의 선양과 기념의 당위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광주 3·15의거가 마산보다 3시간 앞선 전국 최초의 의거라는 사실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위상이 그 명분이요 윤리적 당위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정부는 마산의 기념식을 주관하면서도 광주의 3·15의거의 의의를 외면했다. 이에 광주에서는 임의단체(호남4·19혁명총연합회)에서 2011년부터

社 說

이러다 금호타이어 중국에 팔리는 것 아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외부 투자자를 모아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채권단이 최근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혀 금호타이어의 인수전에 새 변수가 생겼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경제계와 지역민들은 이러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공언해 오던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을 안 해 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구성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채권단의 입장으로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채권단은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결과를 오는 16일까지 우선매수권자인 박 회장 측에 통보한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면 된다. 박 회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매수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채권단

에 전달하게 된다. 문제는 박 회장의 자금 조달 계획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자가 박 회장 개인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권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금호 측은 주주협의회(채권단) 동의만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관련 법적조치(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다. 더블스타도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금호 측은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사드 보복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넘어가도록 해서 안 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금호는 제때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겠지만 채권단도 금호가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매각 방법과 기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친박 의원들 ‘삼성동 십상시’가 되려는 건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탄핵 불복을 시사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총괄 업무를, 윤상현·조원진 의원이 정부 업무를, 김진태 의원이 법률 업무를, 박대출 의원이 수행 업무를,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을 거스르는 이 같은 행보는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 의원들이 정치적 선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사태로 사실상 폐적으로 전락한 친박계가 세력화를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처리의 위험 수위를 낮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의 탄핵 결과를 받아들이л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이번 대선을 보혁(保革) 대결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차갑기만 하다. 국정 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박 핵심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 전박적인 평가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저로 몰려드는 친박 의원들에 대해, ‘삼성동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 친박 의원들은 그동안 대통령과의 정리와 정치적 의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란 그러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처절한 반성이다. 그래도 꼭 의리를 지키고 싶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삼성동 사저로 출근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기록에 있어 조선 왕조를 능가할 시대는 거의 없다. 임금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기록만 해도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이 있다. 임금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임시 편찬기구를 만들어 재위 기간에 만들어 둔 사초를 모아 방대한 분량의 실록을 만들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기록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는 임금

께 올리거나 임금이 내린 문서, 임금과 관련들이 나는 대화를 모아 실

록보다 더 방대한 승정원일기를 작성했다. 정조 때부터는 임금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인 일성록을 편찬했다.

임금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사관 2명이 동행해 임금의 좌우에 앉았다. 우사(右史)는 임금의 대화를, 좌사(左史)는 임금의 움직임과 표정까지 낱알이 기록했다. 이리니 사냥을 나간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후 했다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듯하다. 태종은 낙상해서 정회하거나 아픈 것보다 실록에 남게 될 것을 꺼려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이를 막지는 못했다.

대통령 기록물

대한민국이 들어선 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2007년 법률로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전두환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을 가장 중시한 대통령이었다. 통치사료비서관을 신설해 자신을 포함해 3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는 반드시 배석시켜 꼼꼼하게 기록하게 했다.

한번은 지방 순시를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르다 통치사료비서관이 보이자

않자 경호실장을 불러 데려오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두

환 기록물은 남아 있지 않다. 노태우 대통령이 82권 1096권, 김영삼 대통령이 111권 1612권을 남긴 것으로 볼 때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확보가 관건인데 핵심 기록 열람을 못하도록 봉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 지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관리만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FAX 222-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